

**제목 :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· 우수부서 시상**  
- 적극행정 문화확산을 위해 위원장 시상 및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

## 1 '20 하반기 적극행정 시상식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'20.12.23.(水) 「'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」 6명과 「'20년 적극행정 우수부서」 6개에 대해 시상하였습니다.

**1. 우수공무원 6인 [우수 3, 장려 3]**

- 이번 시상은 제14차 적극행정위원회\*(위원장 :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)에서 선발한 4분기 우수사례 3건과 지난 3분기 선발 우수사례 3건을 함께 평가하여 각각 우수 3인, 장려 3인을 선정하였으며,

\* 도규상 부위원장(적극위 위원장) 포함 정부위원 5명(국장급) 및 민간위원 8명

- 상반기에 이어 금융위원장이 우수공무원에게 직접 상장을 수여하는 한편, 이중 50%인 우수 3인에게는 성과급 S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.

- ☐ 이번에 선발된 사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,

**❶ 적극행정 지원제도가 금융위 내에 착근되고 있습니다.**

- 기업자산매각 및 불법사금융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활용하거나,

- 코로나19로 인한 실물경제 피해에 금융권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 및 선제적 법령해석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금융규제를 유연화한 사례 등
-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현안 해결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.

### <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사례(3건)>

- ① "기업자산 매각을 지원하여 위기기업의 자금애로 극복"  
(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) (이혜진 사무관)
- ② "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어벤저스 총출동"  
(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) (김세화 사무관)
- ③ "쏜금융권 선제적 규제 유연화로 코로나19 피해기업 신속 지원"  
(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) (송용민 사무관)

## ② 부처협업 및 국민체감 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

-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,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하거나,
- 코로나19 및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망분리 규제와 실명확인 수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과제들이 '적극행정 모니터링단'\* 평가 등 국민 눈높이에서 좋은 과제로 평가되었습니다.

\* 적극행정 추진관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청취·반영을 위해 19명으로 구성된 "적극행정 국민모니터링단" 투표를 거쳐 상위과제에 최대 3점의 가점을 반영

### <부처협업 · 국민체감 사례(3건)>

- ① "코로나19 위기 대응 범정부 자금시장 안전판을 마련하다"  
(「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」설립) (황기정 사무관)
- ② "금융회사 선제적 망분리 예외 인정으로 재택근무 확대"  
(코로나19 관련 금융회사 망분리 예외) (김영진 사무관)
- ③ "금융거래정보 공유와 비대면 실명확인으로 금융편의 제고"  
(금융거래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) (강련호 사무관)

## 2. 우수부서 6개 [우수 3, 장려 3]

- 적극행정 우수부서는 「'20년 금융위 적극행정 실행계획」에 따라, **조직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**을 위해 올 한 해 적극행정에 앞장선 부서\*를 시상하였습니다.

\*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, 교육 참여도, 우수사례 제출, 법령해석 처리건수, 적극행정 중점과제, 기타 홍보 등을 **정량지표로 반영**

### <'20년 적극행정 우수부서(6개)>

- ① 우수부서(3개) : 금융정책과, 은행과, 전자금융과
- ② 장려부서(3개) : 가계금융과, 중소기업과, 금융데이터정책과

## 3. 특별상 10인

- 이외에도 '내조왕'(우수사례 공동작성자 3인), '외조왕'(사전컨설팅, 적극행정 홍보 지원 등 2인), '해석왕'(법령해석 최다 회신 2인) 등 다양한 특별상을 선정하여

-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적극 수행한 직원들을 독려하였습니다.

\* 본상(우수공무원 6, 우수부서6) 외에도 특별상으로 개인 10인, 부서 6개 추가 시상

## 2 금융위원장 당부사항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“올 한 해 어려운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의 전문성과 창의적 아이디어, 그리고 적극행정을 통해 잘 헤쳐나갈 수 있었다”고 감사함을 전하며,
- “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, 금융위 직원들도 우리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도록 국민의 공복으로서 총력을 다할 것”을 당부하였습니다.
- 또한, “앞으로도 기관장으로서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꾸준히 지원해 나갈 것”이라며, 적극행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.

<참고1>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

<참고2>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프로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  
할 경우 출처를 표기  
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	사례	주요 내용
우 수	<p><b>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</b> (이혜진 사무관)</p> <p><b>* 국민추천 협업과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<b>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자구노력</b>을 추진하여도 <b>자산시장 경색으로 매각이 어렵거나 헐값매각 우려</b></li> <li>-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「<b>기업자산 매각지원 방안</b>」을 마련(제6차 중대본회의, '20.6.11)하고 본격 추진('20.7~)</li> <li>* 기업 수요에 맞게 S&amp;LB(Sales&amp;Leaseback, 매각후 재임대), B&amp;H (Buy&amp;Hold, 보유후 매각), LP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되, 총 2조원 규모(캠코) 지원 추진</li> <li>○ <b>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매주 개최</b>(선정위 9회, 심사위 6회)하여 기준을 마련하고, 지원대상 및 인수가격 등 결정하였으며, <b>적극행정위원회,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도출</b></li> </ul>
	<p><b>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유연화</b> (송용민 사무관)</p> <p><b>* 국민추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피해 <b>소상공인·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</b> 은행·보험·증권·카드사 등 <b>주 금융권의 자본·유동성·영업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유연화방안*</b>을 두 차례(1차: 4.17일, 2차: 8.26일)에 걸쳐 추진</li> <li>* ① 감독규정 8건 및 감독세칙 6건 개정, ② 법령해석 8건 및 비조치의견서 14건 시행, ③ 금융위 의결 및 방안발표, 지침개정 10건 등 ⇒ <b>총 46건 조치</b>를 신속·종합적으로 시행</li> <li>- 특히 코로나19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규 도입(4.16~)된 “<b>선제적 법령해석·비조치의견서</b>”를 최초로 발급하는 등 적극 대응</li> <li>○ 이 결과, 금융권의 자본 및 유동성 확보부담이 경감되어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*하는 등 <b>지원역량이 강화</b></li> <li>* 금년 상반기 중 은행권 기업대출이 81.3조원 증가→ '19년 연간 증가액(48.8조원)의 1.6배 상회</li> </ul>
	<p><b>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범부처 총력대응</b> (김세화 사무관)</p> <p><b>* 국민추천 협업과제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장기화로 <b>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시도 확대</b>에 대응하기 위해 「<b>불법사금융 근절방안</b>」을 금융위, 경찰, 방통위, 과기부, 국세청, 서울·경기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('20.6.22일,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)</li> <li>- 관계기관 TF를 <b>정례화 운영</b>하여 소극적인 각 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피해확산을 조기에 억제하는 성과 달성 * 6~12월까지 8차례 TF개최 논의</li> <li>○ 초기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, 법무부, 법률구조공단 등과 수차례 <b>소통·협의를</b> 진행하여 <b>불법사금융 피해지원</b>이라는 정책취지에 맞게 <b>지원제도를 확대</b> 하도록 협조를 이끌어냄 * 집행부진 사유 분석 및 4차례 제도개선 요청</li> <li>- 감사원 <b>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</b>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<b>피해자 무료 법률구제사업의 지원요건과 사업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</b></li> <li>* 지원추이는 급증세 ⇒ '20.上 78건 → 3Q 193건 → 10월 118건 → 11월 170건 → 12월<sup>e</sup> 300건</li> <li>○ 불법사금융 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「<b>불법사금융 그만</b>」 유튜브채널을 개설·운영하여 관계기관에 분산·관리되는 <b>예방 콘텐츠를 종합·집중관리</b></li> </ul>

	사례	주요 내용
장 려	<p>정부-한은-정책금융 공동 자금시장 안전판 마련 (황기정 사무관)</p> <p>* 협업과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한 '저신용 회사채·CP 매입기구(SPV)' 도입에 다수의 참여한 쟁점* 존재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SPV 조성규모, 재원조달 방식·금리, 매입대상 증권 유형, 회사채·CP 부도확률 시뮬레이션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금융위 중심으로 기재부·한은·산은 등 관계기관 실무진부터 최고위급 까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대안 도출에 노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디케이트론 구조(선순위-후순위대출)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담구조 도출, fallen angel 지원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여 재정-한은-산은 모두 참여하는 시장 안전판 마련</li> </ul> </li> <li>○ SPV가 설립된 이후 12.18일까지 비우량채 1.9조원 포함, 총 2.5조원의 회사채·CP를 매입하여 자금시장 안정 지원</li> </ul>
	<p>코로나19 대응 망분리 예외 (김영진 사무관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코로나19 상황에서 망분리 규제로 국내외 금융회사 등이 재택근무 등 활용에 어려움 존재 → 기존 규정상 불분명한 부분을 명확히 안내하는 등 선제적 대응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외 금융회사 등의 원활한 비상대응을 위해, 재택근무의 망분리 예외를 확대하고 금융보안대책을 수립토록 조치</li> </ul> </li> <li>* 금융회사 등의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, 비상상황에 신속·유연하게 대응토록 업권별 협회를 통해 전파(보도자료 배포 등)</li> <li>○ 망분리 예외의 리스크 보완방안을 점검하는 규제 샌드박스*를 적극 발굴 하고, 적극적 유권해석**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인터넷전문은행의 '금융기술연구소'를 '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'하고, 망분리 특례 부여 (4.1일) → 망분리 예외 리스크 보완방안 점검</li> <li>**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·전금융 영위와 무관한 경우 망분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·적용하여 규제 불합리 해소('20.5.)</li> </ul> </li> </ul>
	<p>금융거래 정보 공유 및 실명확인 수단 다양화 (강현호 사무관)</p> <p>* 국민추천 협업과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회사가 비대면 계좌개설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, 고객이 점포 외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</li> <li>○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포괄동의를 받고 포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출시로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</li> <li>○ 기관 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고,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중계 연계망을 구성하여 신속·정확한 수급 자격 파악에 기여</li> </ul>

성명	주요학력	주요경력
김병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서울대 인문학 학사</li> <li>▶성균관대 행정학 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행정고시 24회</li> <li>▶감사원 감사위원</li> <li>▶감사원 제1사무차장</li> <li>▶대한체육회 회장특별보좌관</li> <li>▶(現) 대신증권 사외이사</li> </ul>
구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서울대 외교학과</li> <li>▶(영)University of York 석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(영) University of York경제학과 연구원</li> <li>▶한국금융연구원 부연구위원</li> <li>▶Accenture 금융부분전략 담당부장</li> <li>▶(現)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</li> </ul>
변혜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연세대 경제학 학·석사</li> <li>▶펜실베이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클레어몬트 대학원 방문연구원</li> <li>▶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</li> <li>▶OECD 보험 및 사적연금위원회 정부대표단</li> <li>▶(現) 보험연구원 연구위원</li> </ul>
전상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서울대 영문학사</li> <li>▶오하이오 주립대 MBA</li> <li>▶뉴욕주립대-버팔로, 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뉴욕주립대 경영대학 교수</li> <li>▶한국증권학회, 재무학회, 파생상품학회 이사</li> <li>▶(現)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</li> </ul>
송시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서울대 법학학사</li> <li>▶서울대 법학석사·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변호사</li> <li>▶대법원 재판연구관</li> <li>▶(現)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</li> </ul>
이성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고려대 법학과 학사</li> <li>▶미 네소타대 법학 석사</li> <li>▶서울대 법학 박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정보통신부, 국무조정실 서기관</li> <li>▶김앤장 미국변호사</li> <li>▶(現) 과기부 블록체인규제개선 연구반</li> <li>▶(現)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</li> </ul>
김연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서울대 경영학 학사</li> <li>▶서울대 대학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베인 앤 컴퍼니 대표</li> <li>▶(現)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 파트너</li> </ul>
고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고려대 법학과</li> <li>▶조지타운대 로스쿨 법학 석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(現) 방통위 개인정보보호 법령해석 자문위원회 위원</li> <li>▶(現)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</li> </ul>